

석유산업동향 및 주요정책

-산업자원부-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장관회의, 한국 가입초청 공식발표

- IEA 가입으로 에너지위기시 주요 선진국과 공동 대응체제 구축 -

지난 4월 20일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가입이 의결됨에 따라 5월 16일 파리에서 개최 (현지시간 09:30~15:30)된 IEA 에너지장관회의에 회원국 자격으로 산업자원부 이희범(李熙範) 차관이 처음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6개 회원국(한국 포함)의 에너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가입초청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IEA의 “세계에너지 수급전망 2000” 보고서에 기초하여 에너지안보, 에너지시장 발전, 지속가능발전 등의 의제를 토의한후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력을 강화 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World Energy Outlook(2000)” 요지 >

- 2020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는 60%정도 증가할 것이며, 이중 상당부분 개도국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주종 에너지원은 상당기간 석유, 석탄, 가스 및 원자력이 될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IEA 회원국의 공동노력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

본 회의에서 산업자원부 이희범차관은 한국의 IEA 가입을 지지해준 회원국에 대한 사의표명과 함께 비축유 확충, 온실가스 감축,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IEA의 Shared Goal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으며,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수급안정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한편, IEA와 APEC이 상호협력하여 전세계적인 석유수급 정보의 실시간 교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회의 직후 IEA 사무총장(Mr.Robert Priddle)과

면담을 통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 전문가 사무국 정규직원으로 진출 등 IEA 가입에 따른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IEA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한국의 IEA 가입을 정식으로 대외에 공표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IEA 각종회의 및 협력사업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다.(투표권은 국회비준서를 벨기에 정부에 기탁후 부여받게 됨)

국제에너지기구 가입으로 인해 주요 소비국의 에너지 집단안보체제 참여를 통해 에너지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

대체에너지기술 공동개발 참여 용이 등의 실익과 함께 국제 에너지외교에 있어서 위상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산유국과의 협력시 주요 수입국으로서의 지위에 더해 국제 에너지기구 회원국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등의 에너지분야 다자협상시 IEA 회원국 모임의 일원이 됨으로써 협상동향 파악이 용이해지는

등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정부는 그간 사회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국제에너지기구 가입시 석탄 산업 보조금제도 폐지,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유 신축적 운용제한등의 우려는 그간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해소됐다고 밝혔음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착수

산업자원부는 상표표시제의 변경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석유산업의 공정경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했다.

1. 금번 개정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 (1) 금년 9월 1일부터 현행 단일상표표시제가 사적계약 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해 복수상표주유소의 시설기준 등을 보완
- (2) 신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판매량”기준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석유비축관련 규정을 현실성있게 보완
- (3)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원료, 자가소비 제외 등)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효과

- (1) 복수상표표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저장 시설·주유기)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여 석유제품의 혼유를 방지
- (2) 신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축의무의 공정성을 확보
- (3) 원료로 공급되는 유분을 부생연료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유사 - 석유화학사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

향후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후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중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극동시베리아 석유·가스 개발 참여 본격화될 전망

- 제4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정부·기업간 논의 -

지난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한-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석유·가

스 공동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제4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4.9(월) 서울 KOTRA 회의실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차관과 마틀라쇼프(I.A.Matlashov)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하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과 사할린 석유·가스개발 참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금번회의는 지난해 한-러 자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참여가 확정되는 등 양국간 자원 협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 금번회의 양국간 주요 논의 사항

(1)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한·중·러 3국간 사업 타당성조사를 2002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기로 재확인
- 양측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가스배관망의 북한통과 가능성도 한가지 대안으로 검토키로 함
- 양측은 향후 이르쿠츠크 가스전 본격 개발시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참여회사들의 참여 조건(생산물분배계약, PSA)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차기회의에서 동 문제를 논의키로 함

(2)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러시아는 사할린 근해 호호츠크해상에서 개발·생산중인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사할린-1 및 2)에 우리나라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현재 국제입찰중인 사할

린-4,5,6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기업의 참여를 제안함

(3) 극동시베리아 지역 자원개발

러시아는 이르쿠츠크, 사할린 지역 이외에도 유르브체노-토콤스까야(Yurubcheno-Tokhomsckaya) 지대등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유망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

(4) 이외에도 양국은 동북아지역이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동 지역내에서의 석유·가스·전력을 망라한 에너지 협력 필요성에 공감

산업자원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양국 정부 및 기업간에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 석유 가스개발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기반 구축 및 해외자원개발 거점의 하나로 對러시아, 특히 對극동 시베리아 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금번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이외에도, 오는 4.23-24간 한-호 자원협력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어서 인니·베트남·중국과도 금년중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원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